

전남 시·군, 청년 유입으로 활력 찾는다

전남인구, 희망찾기 프로젝트 을 10개 사업 20억원 투입 청년 450명 취업·정착 지원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허덕이고 있는 전남도와 각 시·군이 청년들의 유입과 도심 활력 제고를 위해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20억원을 투입해 450명의 청년들이 시·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어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각 시·군이 신청한 16개 사업 가운데 10개 사업을 선정해

사업비를 지원하는 2020년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찾기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각 사업당 1억~3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광양시가 청년 취업 지원 '올인원' 시스템 운영 및 문화예술 활성화 '청년 어울림장터'에 1억4400만원, 해남군이 청년 먹거리 캠퍼스 조성, 창업희망 청년 교육 및 창업 지원 운영에 1억9500만원, 담양군이 지역 관광 플랫폼 조성을 통한 청년 관광 사업가 육성 및 콘텐츠 개발에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무안군은 1억4000만원으로 친환경 황토건축 청년전문가 양성을 통한 정착 유도 및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보성군

은 1억7600만원으로 다도·휴폐선 및 창업교육을 통한 청년다방 운영 취·창업 지원할 예정이다. 영광군은 여민동락 공동체와 연계한 외지청년 유입,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등에 1억원을, 화순군은 첨단농업 교육 실습장 조성을 통한 청년 농 육성 및 창업 지원에 3억원을 각각 투입한다.

완도군은 섬 세대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조성 및 교육·양육 프로그램 운영에 1억8600만원을, 강진군은 빈집 활용 청년 공간 조성을 위해 3억원을, 진도군은 청년 창업공간 및 진도살아보기 운영에 1억7900만원을 쓰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남도는 올 연말까지 시·군의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내년 1월 사업평가 및 추진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26개 사업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청년 1217명이 16개 시·군에 취업 및 창업을 통해 정착한 것으로 분석했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정책관은 "각 시·군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에서 기회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유입하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취지"라며 "청년들의 유입이 각 지역의 활력과 매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사회서비스 종사자 마스크 배부 전남복지재단은 최근 대면접촉 업무가 불가피한 돌봄기관 등 전남지역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마스크 2000개를 지원했다. 사진은 지난 17일 순천 팔마체육관으로 마스크 수령을 위해 나온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관계자에게 복지재단 직원이 마스크를 전달하는 모습. <전남복지재단 제공>

전남도 노후관광지·특구 29곳 대상 재생사업 공모

전남도가 도내 등록 관광(단)지·특구 36개소 가운데 10년 이상된 29곳을 대상으로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을 공모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시설 노후화와 관광 콘텐츠 부족으로 쇠락하고 있는 기존 관광지에 대해 노후시설 개·보수사업을 통해 매력 있는 '열린 관광지'로 조성할 예정이다.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2년이며, 사업비는 도비 19억5000만원 포함 39억원이다.

전남도는 24일까지 공모 서류를 접수해 4월말 서면 및 현장 평가를 거쳐 2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



전남도 SOC 투자 확대 건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지난 20일 서울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김희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기반시설 투자 확대를 건의했다. 김 지사는 또 올 연말까지 확정 계획인 도로, 철도, 공항 등 중장기 국가계획에 전남도의 핵심 사업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반려동물 인프라 구축 29억원 지원

지원센터·중성화 수술비 등

전남도는 올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보호를 위해 반려동물 문화센터 건립 등 인프라 구축 5개 사업에 29억원을 지원한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전체 가구 중 16%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5만1214마리가 반려동물로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사업내용은 반려동물 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올해 순천시에 20억원을 지원한다. 반려동물 지원센터는 반려동물 체험학습장, 교육장, 입양센터, 놀이터 등을 갖춘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된다.

또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9억원을 지원한다. 유실·유기동물 보호를 구조해 지정된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치료와 관리 실시하며, 유기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동물병원 진료와 미용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 10만원을, 20만원 미만인 경우는 50%까지 지원이 이뤄진다.

이와 함께 길고양이의 번식 예방을 위해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6500만원을 배정했다.

주택가에서 번식해 살아가는 길고양이를 포획한 후 중성화 수술을 실시해 무분별한 번식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최근 반려동물 사육 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 보호 확대와 관련 인프라 구축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반려동물과 사람의 조화로움 공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반려동물이 의도적으로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고 길 잃은 동물을 보호자에게 쉽게 찾아가기 위해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 추진했으며, 총 3만4644마리를 등록해 목표 마릿수인 1만8119마리의 191%를 달성, 전국에서 가장 높은 등록률을 기록한 바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공인중개사 자격증 일제 정비...245명 말소

전남도는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실시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985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교부 받은 도내 5936명을 대상으로 최근 조사를 통해 사망자 등 말소정리가 안 된 245명의 자격을 직권으로 정리했다. 말소자는 성별로 남성 236명(96.3%), 여성 9명(3.7%)이며, 연령별로 40대 미만 1명(0.4%), 40~50대 25명(10.2%), 60~70대 144명(58.8%), 80대 이상이 75명(30.6%)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정비는 지금까지 중개업 등록기안된 사건에서 사망자 통보에 의해 말소했던 것과 달리 전남도가 직접 주민등록 전산 자료를 조회한 후 사망자의 자격을 직권으로 말소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공공건축물 디자인 품격 높인다

총괄·공공건축가 31명 위촉 건축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정

전남도가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지정해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수준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통해 민간건축물의 디자인 개선을 유도하고, 시가지지를 재생하는 역할도 하겠다는 것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5월까지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를 모집해 선정하고 '전남도 건축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할 예정이다. 개별적·획일화된 디자인이 적용된 기존 공공건축물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획·설계부터 공사까지 민간전문가를 참여시켜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디자인 가치를 높일 방침이다.

대상 공공건축물은 ▲건축기법법, 건축법, 경관법 등에 의한 건축물 및 공간환경 사업 ▲도시개발법, 도시재생법 등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도시공원법, 농어촌정비법 등에 의한 공공시설사업 ▲농산어촌 정비사업 ▲어촌뉴딜300, 생활SOC사업 등 국가 주요정책 및 시범사업 등이다.

총괄건축가 1명은 2년 임기 비상근직이며, 공공건축물과 도시디자인의 조정 및 자문, 자문위원 성격의 공공건축가는 30여명을 위촉해 2년간 기획부터 준공까지 분야별 자문 및 심사를 각각 맡게 된다. 전남도는 관계부서나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이들을 위촉할 예정이며, 위촉 대상은 건축사, 건축·도시·조경 관련 기술사, 대학 교수 등으로 제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 맞춤형 현장 지도

25일부터...선별포장 의무화 전남도 농가 시설기준 등 안내

오는 25일부터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남도가 영업허가를 준비 중인 농가를 직접 방문해 시설기준 등 맞춤형 지도에 나서 농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계란을 전문적으로 선별에서부터 세척, 건조, 살균, 검란, 포장까지 하는 영업으로, AI 등 가축전염병 확산 예방과 식용란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 제도다.

앞으로 해당 농가는 가정용으로 판매하는 모든 계란은 선별포장 처리해야 하며,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시설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 등을 반드시 갖춰야 한다.

전남도에 산란계 1만 마리 이하를 사육

한 55농가와 동물복지축산농장 또는 유기식품 등의 인증을 받고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인증'까지 받은 15농가는 식용란 선별포장 유통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전남지역 산란계 사육농가는 139호로 하루 평균 340만개의 알을 생산하고 있으며, 1만 마리 이상 사육하는 곳은 69농가다. 현재까지 도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허가를 받은 곳은 모두 19개소이며, 나주가 7개소, 무안 4개소, 화순과 영암이 각각 2개소, 목포와 곡성, 구례, 함평이 각각 1개소씩이다.

이용보 전라남도 동물방역과장은 "지난해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준비한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HACCP 기준 등을 전화와 문자, 메일로 안내하고 농장별 현장 방문 맞춤형 지도를 해 왔다"며 "준비중인 업체의 영업허가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